

간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정¹, 박영미^{1*}, 하영옥¹, 권유림¹, 송정희², 김민경², 김다연²

¹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Drop out

Jung Choi¹, Young Mi Park^{1*}, Young Ok Ha¹, Yoo Rim Kweon¹, Jung-Hee Song²,
Min Kyeong Kim², Dayoun Kim²

¹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민첩성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K도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 재학생 363명을 편의표집하였으며, 2020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과 중도탈락의도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4.32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66점, 학습민첩성은 3.40점, 중도탈락의도는 2.08점이었다. 중도탈락의도는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전공만족도, 정신적 건강상태, 성적, 학년이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4%였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중도탈락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중요 변수들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과 학과 차원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사회적 지지, 중도탈락의도, 학습민첩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agility on intention of academic dropout among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line surveys from November 9 to 27, 2020. The 363 students were conveniently sampled from the school of nursing in K-do in Korea. The contents of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cluded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agility, intention of academic dropout. As a result, The score of each variables were like this: social support 4.32, academic self-efficacy 3.66, learning agility 3.40, intention of academic dropout 2.08. The factors that affecting intention of academic dropout among nursing students are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agility, satisfaction on major,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grade in score and grade, which explained 30.4% of the variances. Therefore in order to lower the intention of dropping out of nursing students, it is considered that the development of programs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ystematic support are necessary.

Key Words : Academic Self-Efficacy, Dropout Intention, Learning Agility,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에서 입학자원이 부족하여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학

에 입학한 이후에도 재학생의 중도탈락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중도탈락 비율은 2010년 7.4%, 2018년 7.9%, 2019년 8.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대학 또한 2010학년도 이후 매년 4.0% 초반대의 중도탈락률을 유지하다 2018~2019학

*Corresponding Author : Young Mi Park(susana21@ansan.ac.kr)

Received February 1,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Revised February 1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년도는 4.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 내 학생들의 학업 중단은 증가는 학교의 재정난을 증가시키고 불안정한 재학생 확보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다 [2]. 대학의 중도탈락률은 교육기관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대학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탈락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3]. 또한 개인적으로 중도탈락은 단순히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종의 실패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직업 획득 기회의 제한과 낮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어[4], 학생들이 왜 중도에 탈락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함께 이들을 지속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도탈락은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대학교육여건이나 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관심과 적성, 학업능력이나 태도와 같은 내부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6] 자기불일치, 우울같은 심리적 특성 등도 중도탈락과 관련 있는 변수로 보고되었다[7]. 또한 중도탈락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정체성,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과 및 대학생활적응도 등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원조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킴으로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준다[9]. 사회적 지지가 좋을수록 학업성적,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력, 학업지속 의향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10] 학생들을 중도탈락 가능성의 위기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이나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예측을 수반하는 주관적 판단으로[11] 개인의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이 어떤 과제에 임할 때 자신이 어느 정도 그 과제 수행에서 효율적일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2].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 교과에 대한 흥미

와 가치, 과제 수행에 대한 인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중도탈락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3,7]가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해보고자 한다.

학습민첩성은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학습의지 및 능력으로, 그 결과 처음 직면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배우고 생각과 행동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14].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능동적으로 경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이를 통한 학습과정에서 뛰어난 자기성찰은 물론 타인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학습민첩성은 진로준비행동, 대학생활 만족도 및 대학생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16,17].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관련이 있는 변수로 밝혀진 개인 내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취업가능성이 높은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문이나 직업에 대한 이해보다도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 비자발적인 선택도 증가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학업부담과 실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8].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공학과에 맞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학생의 선택이 필요한데 [19] 반해, 비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간호학과 학생의 증가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18,20],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19]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으나 중도탈락의도를 확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중도탈락의도에 대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념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변인을 선정하여 중도탈락 의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을 낮추고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학업 자기효능감, 학업민첩성 변인을 선정하여 중도탈락의도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민첩성과 중도탈락의도의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민첩성과 중도탈락의도와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과 중도탈락의도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중도탈락의도에 대한 연구이므로 졸업예정 학년 재학생은 제외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 산정은 G*Power 3.1.9.4 프로그램 산출결과를 근거로 하였다[21]. F-test의 Linear regression에서 효과크기 0.06,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주요변수 4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표본수는 315로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370명이 설문 참여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7명을 제외한 363명의 응답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내용은 연령, 성별, 학년, 동거형태, 가정 경제상태, 신체적 건강인식, 정신적 건강인식, 휴학경험,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를 포함하였다.

2.3.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

회적 지지의 주관적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Zimet 등[22]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Park[23]이 국내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측정도구는 가족지지 4문항, 친구지지 4문항, 중요한 타인지지 4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3]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7~.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문적 수행수준과 성취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Kim과 Park[24]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 자신감 8문항,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74~.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4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과 의지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Gravett와 Caldwell[25]이 개발한 학습민첩성 측정도구를 Yim[26]이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고민첩성 6문항, 대인민첩성 6문항, 변화민첩성 6문항, 결과민첩성 7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im[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5 중도탈락의도

중도탈락의도는 Gu[27]가 지난 한 달 동안 학업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욕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생각 4문항, 학교를 그만두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정도에 대한 4문항으로 단일요인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K도 소재 일개 간호학과에서 진행하였다. 간호학과장의 연구 진행 동의하에 연구에 대한 정보를 학생 온라인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읽도록 하였고, 자발적인 연구참여의사를 온라인 상에 밝힌 후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아울러 중도철회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안내하였다. 설문을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37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절절한 7개를 제외한 총 363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중도탈락의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및 중도탈락의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및 중도탈락의도와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15 ± 3.80 세이고, 성별은 남자 77명 (21.2%), 여자 286명(78.8%)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학년별 응답자는 1학년 130명(35.8%), 2학년 112명(30.9%), 3학년 121명(33.3%)으로 각 학년별 비율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 중 가족과 거주하는 학생은 309명(85.1%)이며, 혼자 거주하는 학생은 29명(8.0%)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49명(13.5%),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46명(12.7%)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응답자 중 61명(16.8%)이 휴학 경험이 있었고 성적 분포도는 평점 4.0이상 159명(43.8%), 3.5~4.0 미만 90명(24.8%), 3.0~3.5미만(66명, 18.2%)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에 대해서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244명(67.2%),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 각각 6명(1.7%), 1명(0.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및 중도탈락의도는 Table 1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상태($F=5.96, p<.001$), 신체적 건강상태($F=6.81, p<.001$), 정신적 건강상태($F=20.69, p<.001$), 성적($F=4.23, p<.05$), 전공만족도($F=4.58, p<.05$), 대인관계($F=11.05,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별($t=-2.97, p<.05$), 경제적 상태($F=3.79, p<.05$), 신체적 건강상태($F=16.56, p<.001$), 정신적 건강상태($F=11.43, p<.001$), 성적($F=3.59, p<.05$), 전공만족도($F=10.11, p<.001$), 대인관계($F=6.57,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습민첩성은 학년($F=3.64, p<.05$), 경제적 상태($F=5.53, p<.001$), 신체적 건강상태($F=18.85, p<.001$), 정신적 건강상태($F=11.77, p<.001$), 성적($F=3.77, p<.05$), 전공만족도($F=14.69, p<.001$), 대인관계($F=9.58,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도탈락의도는 학년($F=9.83, p<.001$), 동거상태($F=3.95, p<.05$), 신체적 건강상태($F=8.05, p<.001$), 정신적 건강상태($F=11.96, p<.001$), 성적($F=8.28, p<.001$), 전공만족도($F=24.43,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및 중도탈락의도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및 중도탈락의도의 평균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4.32 ± 0.60 점(총점 5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66 ± 0.57 점(총점 6점), 학습민첩성은 3.40 ± 0.46 점(총점 5점), 중도탈락의도는 2.08 ± 0.91 점(총점 5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친구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게 과제난이도 선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민첩성과 결과민첩성이 높게 나타났고 변화민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및 중도탈락의도의 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중도탈락의도의 관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중도탈락의도는 사회적 지지($r = -.173, p < .05$), 학업적 자기효능감($r = -.242, p < .001$), 학습민첩성($r = -.155, p < .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r = .296, p < .001$), 학습민첩성($r = .345, p < .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 = .688, p < .001$).

3.4 대상자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의 투입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관련 선행문헌을 분석한 결과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도탈락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을,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 중 중도탈락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전공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성적, 학년, 동거상태를 순서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전공만족도, 정신적 건강상태, 성적,

학년이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5%(Model2)였다. Durbin-Watson 수치가 2.065로 나타났으며, 이는 2에 근접한 숫자이므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인자(VIF)는 1.029~2.106로 10미만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2.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Agility and Dropout Intention (N=363)

Variables	M±SD
Social support	4.32±0.60
Family subscale	4.22±0.73
Friends subscale	4.38±0.65
Significant Other subscale	4.37±0.75
Academic self-efficacy	3.66±0.57
Task difficulty preference	3.38±0.72
Self regulatory efficacy	4.10±0.70
Self-confidence	3.46±0.93
Learning agility	3.40±0.46
Mental agility	3.51±0.50
Change agility	3.09±0.52
People agility	3.48±0.57
Result agility	3.51±0.52
Dropout intention	2.08±0.91

Table 3. Correlation among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Agility and Dropout Intention (N=363)

Variables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agility	Dropout intention
Social support	.296** (.000)	.345** (.000)	-.173* (.001)
Academic self-efficacy		.688** (.000)	-.242** (.000)
Learning agility			-.155* (.003)

* $p < .05$ ** $p < .001$

Table 1. Comparison of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Agility and Dropout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63)

Characteristics		N(%)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agility		Dropout intention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Age(yr)	≤20	125(34.4)	4.33(0.51)	.22 (.88)	3.63(0.54)	1.02 (.38)	3.39(0.46)	.52 (.67)	1.97(0.83)	1.55 (.20)
	21-25	198(54.5)	4.31(0.65)		3.69(0.59)		3.42(0.46)		2.10(0.93)	
	26-30	31(8.5)	4.31(0.61)		3.66(0.58)		3.41(0.48)		2.33(1.02)	
	≥30	9(2.5)	4.47(0.56)		3.39(0.57)		3.23(0.36)		2.29(0.98)	
Gender	Man	77(21.2)	4.37(0.59)	-.78 (.44)	3.86(0.72)	-2.97 (.004)	3.50(0.54)	-1.88 (.063)	1.97(1.07)	1.10 (.27)
	Woman	286(78.8)	4.31(0.60)		3.61(0.51)		3.38(0.43)		2.11(0.86)	
Grade	Freshman	130(35.8)	4.33(0.60)	2.64 (.73)	3.67(0.58)	2.30 (.10)	3.46(0.44)	3.64 (.03) a)b	1.80(0.84)	9.83 (.000) a(b,c)
	Sophomore	112(30.9)	4.23(0.58)		3.57(0.58)		3.31(0.46)		2.24(0.91)	
	Junior	121(33.3)	4.40(0.61)		3.73(0.54)		3.43(0.46)		2.23(0.91)	
Living status	Live alone	29(8.0)	4.25(0.73)	.35 (.71)	3.78(0.78)	2.05 (.13)	3.47(0.53)	1.09 (.34)	2.10(1.00)	3.95 (.02) b)c
	Live with friend	25(6.9)	4.38(0.66)		3.83(0.82)		3.50(0.64)		2.57(0.98)	
	Live with family	309(85.1)	4.33(0.58)		3.64(0.52)		3.39(0.43)		2.04(0.89)	
Economic status	very low	21(5.8)	4.08(0.51)	5.96 (.000) a,b,c,d,e	3.76(0.81)	3.79 (.005) b,c,e	3.47(0.61)	5.53 (.000) b,c,d,e	2.18(1.04)	.85 (.49)
	lower	58(16.0)	4.23(0.66)		3.56(0.54)		3.42(0.41)		2.25(0.91)	
	medium	193(53.2)	4.27(0.61)		3.62(0.49)		3.33(0.44)		2.02(0.86)	
	higher	67(18.5)	4.47(0.50)		3.67(0.49)		3.44(0.37)		2.06(0.86)	
	very high	24(6.6)	4.75(0.46)		4.06(0.91)		3.77(0.63)		2.13(1.28)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very poor	2(0.6)	3.83(0.24)	6.81 (.000) b,c,d,e	4.95(1.49)	16.56 (.000) a,e)b)c,d	4.18(0.93)	18.85 (.000) a,e)d)b,c	3.81(1.68)	8.05 (.000) a,b,c,e b)d
	poor	47(12.9)	4.21(0.64)		3.36(0.53)		3.21(0.35)		2.50(0.92)	
	ordinary	100(27.5)	4.20(0.67)		3.50(0.48)		3.21(0.43)		2.23(0.85)	
	good	156(43.0)	4.32(0.54)		3.70(0.48)		3.45(0.38)		1.96(0.86)	
	very good	58(16.0)	4.66(0.46)		4.03(0.68)		3.73(0.53)		1.76(0.89)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very poor	6(1.7)	3.06(0.83)	20.69 (.000) a,b,c,d(e) e	3.38(1.43)	11.43 (.000) b,c,d,e	3.37(0.74)	11.77 (.000) b,c,d(e)	3.56(1.13)	11.96 (.000) a(b,c,d,e)
	poor	40(11.0)	4.20(0.62)		3.39(0.47)		3.18(0.39)		2.38(0.90)	
	ordinary	115(31.7)	4.12(0.63)		3.51(0.52)		3.27(0.45)		2.32(0.88)	
	good	149(41.0)	4.42(0.47)		3.74(0.48)		3.46(0.38)		1.83(0.75)	
	very good	53(14.6)	4.71(0.41)		4.00(0.63)		3.69(0.53)		1.88(1.00)	
Leave of absence	experienced	61(16.8)	4.24(0.62)	1.19 (.23)	3.79(0.70)	-1.63 (.11)	3.44(0.49)	-.70 (.48)	2.20(1.10)	-.94 (.35)
	not experienced	302(83.2)	4.34(0.59)		3.63(0.54)		3.39(0.45)		2.06(0.86)	
Grade in score	<2.0	4(1.1)	3.17(1.27)	4.23 (.001) a,c,d,e	3.28(0.16)	3.59 (.004)	3.15(0.29)	3.77 (.002)	2.59(0.28)	8.28 (.000) b,c,d,e
	2.0-2.5	14(3.9)	4.21(0.59)		3.47(0.71)		3.25(0.27)		2.74(1.03)	
	2.5-3.0	30(8.3)	4.16(0.58)		3.43(0.53)		3.19(0.49)		2.54(1.00)	
	3.0-3.5	66(18.2)	4.30(0.61)		3.53(0.56)		3.29(0.50)		2.31(0.84)	
	3.5-4.0	90(24.8)	4.41(0.51)		3.78(0.56)		3.45(0.48)		2.15(0.90)	
	≥4.0	159(43.8)	4.36(0.60)		3.71(0.56)		3.48(0.42)		1.79(0.82)	
Satisfaction on major	very unsatisfied	1(0.3)	5.00	4.58 (.001)	3.29	10.11 (.000)	3.00	14.69 (.000)	2.50	24.43 (.000)
	unsatisfied	6(1.7)	4.24(0.65)		3.63(0.68)		3.45(0.36)		3.23(1.09)	
	average	112(30.9)	4.16(0.63)		3.43(0.61)		3.21(0.46)		2.65(0.85)	
	satisfied	186(51.2)	4.36(0.57)		3.70(0.44)		3.41(0.36)		1.86(0.75)	
	very satisfied	58(16.0)	4.54(0.56)		3.97(0.67)		3.73(0.54)		1.57(0.84)	
Personal relationship- <i>ip</i>	very uncomfortable	5(1.4)	3.60(1.13)	11.05 (.000) a,b,c,d,e	3.46(1.00)	6.57 (.000) c,d,e	3.13(0.60)	9.58 (.000) c,d,e	1.55(0.67)	1.96 (.61)
	uncomfortable	9(2.5)	4.02(0.59)		3.63(0.61)		3.27(0.40)		1.92(0.96)	
	ordinary	98(27.0)	4.15(0.65)		3.53(0.49)		3.25(0.42)		2.15(0.91)	
	amicable	174(47.9)	4.32(0.54)		3.62(0.48)		3.40(0.39)		2.05(0.88)	
	very amicable	77(21.2)	4.65(0.46)		3.94(0.72)		3.64(0.55)		2.11(0.98)	

Table 4. Factors on Dropout Intention (N=363)

Variables	Model1		Model2	
	B	p	B	p
(Constant)	3.920	.000	5.129	.000
Social support	-.181	.029	-.050	.503
Academic self-efficacy	-.389	.001	-.284	.004
Learning agility	.108	.448	.415	.001
Satisfaction on major			-.447	.000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093	.096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117	.043
Grade in score			-.140	.000
Grade			.112	.032
Living status			-.101	.145
Adj R ²	.063		.305	
F	9.181		18.613	
p	.000		.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과 중도탈락의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며 학업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중도탈락의도를 변화시키고 학업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 중 평균 4.32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친구지지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지지 4.37점, 가족지지 4.22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공학계열 대학생을 연구한 Park[23]의 연구에서의 평균 4.12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의 3.88점 보다 높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대부분인 85%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기반이 됨에 따라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쳐서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29]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도탈락의도를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 이외에도 교수와 선배 등 대학과 학과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지를 받을 때 대학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30]. 이에 학생들이 자신이 지지

받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수나 믿을 수 있는 타인들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후원하고, 신입생부터 졸업 시까지 동일한 지도교수를 유지하는 전담지도교수 체제를 통해 친밀감과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후배와 동기들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전공동아리 또는 친목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한다면 대학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6점 만점 중 3.66점이었고, 자기조절효능감이 4.10점, 자신감이 3.46점, 과제난이도 선호가 3.38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Shim[31]의 연구결과와의 3.18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의 Lim과 Yeom[32]의 연구의 3.68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며, 중도탈락률을 낮춘다는 선행연구[8,3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식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대한 애착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Seo[34]의 연구와, 정신적 상태를 건강하게 잘 조절할수록 학업적 성취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Yoo[35]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여주고, 전공에 대한 만족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학기 내내 함께 소통하면서 공동체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교수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잠재능력에 대한 기대와 활동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력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민첩성은 5점 만점 중 평균 3.40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사고민첩성과 결과민첩성이 각 3.51점, 대인민첩성이 3.48점, 변화민첩성이 3.09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조사한 Yim[26]의 연구에서는 3.53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았으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2.92점[36]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점수가 낮게 나타나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학습민첩성은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학습한 것을 빠르고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기 [36] 학과의 특성에 따라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하는 경험을 많이 쌓았을수록,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등의 다양한 학습의 경험이 많을수록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습민첩성은 주로 변화하는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의 역량으로서 기업 조직에서 대부분 연구되어져 왔지만 [37], Song 등[3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결과에서도 학습민첩성이 중도탈락의도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688, p<.001$). 학습민첩성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역량이며,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중도탈락의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 전공만족도, 정신적 건강상태, 성적, 학년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5%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업 중단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8,33]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에게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고, 학습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어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39].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해간다는 것은 학생이 학습활동에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도탈락을 하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습민첩성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Song 등[3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이나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였을 때 비판적사고를 통해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역량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많이 접하도록 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감성을 키우도록 하여 이러한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고 학업중단의도가 낮다는 선행논문들[40,4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공을 선택할 때 개인의 내재적 요인이 중요하겠지만, 입학 후 교수와 선배, 또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중도탈락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중요 변수들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과 학과 차원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중도탈락의도를 변화시키고 대학에 잘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민첩성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민첩성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서는 전공만족도, 정신적 건강상태, 성적, 학년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중도탈락률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민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학업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등의 학생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과, 교수와 선배, 동료간의 교류활동 등을 지원하여 지지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대학차원에서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 교수의 질 높은 강의 지원, 다양한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대학의 타 학과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와, 이미 중도탈락하였거나 휴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반복연구는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증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 *Education Statistical Analysis Data Collection*. <http://www.moe.go.kr>
- [2] S. Kim. (2006). A Study on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out of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3(4), 33-62.
- [3] S. I. Han. (2018). Exploration of Factors that Affect College Student Drop-out and Resili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4), 1369-1391. DOI: 10.22251/jlcci.2018.18.24.1369
- [4] J. Kim. (2011).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llege, Social Variable, and Dropout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30(2), 249-266.
- [5] C. Garza & M. Landeck. (2004). College freshman at risk-social problem at issue: an exploratory study of a Texas/Mexico border community college. *Social Science Quarterly*, 85, 1390-1400.
- [6] S. S. Lee & K. B. Park. (2019).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and Dropou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1185-1210.
- [7] J. E. Hyung & J. S. Kim. (2016).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elf-discrepancy and Dropout Intention :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Career Indecision,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7), 189-220.
- [8] H. S. Park. (2017)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College Freshmen's Intention of Dropout: Focused on C-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5), 423-442. DOI: 10.22251/jlcci.2017.17.15.423
- [9] H. J. Jung & H. I. Chung. (2012).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3), 188-196.
- [10] L. J. Friedlander, G. J. Reid, N. Shupak & R. Cribbie. (2007).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 223-236.
- [11] M. Bong & E. M. Skaalvik. (2003).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How different are they reall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5(1), 1-40.
- [12] H. S. Yi, J. A. Shin & K. H. Kim. (2013).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Context Variables and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Multi-level SEM Analys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6(2), 477-506.
- [13] A. Kim & I.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14] M. M. Lombardo & R. W. Eichinger. (2000). High potentials as high lead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39(4), 321-329.
- [15] M. Kim. (2006). *The Effect of Learning agility level perceived by employees in Large Korean Enterprises on Job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ve work behavio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16] H. S. Lee. (2019).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hallen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 197-204.
- [17] K. H. Yim. (2020).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on Learning Agilit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angwon University.
- [18] H. J. Choi & E. Lee. (2012).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 261-268.
- [19] S. O. Choi, J. K. Park & S. H. Kim.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 182-189. DOI: 10.5977/jkasne.2015.21.2.182
- [20] K. H. Yoo. (2018).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3), 269-278. DOI : 10.5977/jkasne.2018.24.3.269
- [21]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10.3758/BRM.41.4.1149
- [22]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DOI: 10.1207/s15327752jpa5201_2
- [23] S. Y. Park. (2016).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career adaptability for college students in engineer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4] A.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25] L. S. Gravett & S. A. Caldwell. (2016). *Learning agility: The impact on recruitment and retention*. New York: Springer Nature.
- [26] K. H. Yim. (2020).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on learning agilit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nam-do.
- [27] J. G. Gu. (2003).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student's school drop-out need.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09-330.
- [28] S. Y. Lee & J. S. Lee. (2017). The Convergent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03-412. DOI: 10.14400/JDC.2017.15.12.403
- [29] J. N. Jeong. (2020). The Impacts of Resilience,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and sophomore yea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2), 385-394. DOI: 10.15207/JKCS.2020.11.2.385
- [30] D. D. Guthrie & V. Fruiht. (2020). On-Campus Social Support and Hope as Unique Predictors of Perceived Ability to Persist in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22(3), 522-543. DOI: 10.1177/1521025118774932
- [31] C. S. Shim. (2018).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2), 17-25.
- [32] S. M. Lim & Y. R. Yeom. (2020).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1), 107-116. DOI: 10.22156/CS4SMB.2020.10.11.107
- [33] W. Y. Yun & S. H. Kim. (2020).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x & Accounting Department on Dropout Intention. *Tax Accountion Research*, 65(0), 193-211.
- [34] Y. J. Seo. (2017). *The Effect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Major Commit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Learning Persistence by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 [35] J. H. Yoo. (2012). *Tes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ng academic emotion regulation, learning strateg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 [36] E. M. Sung & S. H. Jin. (2019). Analysis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at the Level of Learning Agility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5(4), 1005-1033.
- [37] M. J. Oh & W. C. Kim. (2020).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Learning Ag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ustomer Orientation, and the Sales Performances of Company A Automobile Salespeople.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15(1), 57-87.
- [38] Y. S. Song, H. S. Lee & C. H. Yim. (2018).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gility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non-metropolitan area.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7(6), 1-20.
- [39] T. Honicke & J. Broadbent. (2016).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7, 63-84.

- [40] Y. J. Song & G. P. Cho.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34(4), 61-77.
- [41] W. J. Park. (2018). *The Differences of Satisfaction in Major, Dropout Intenti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otivations of Major Choice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and Education University, Chungcheongnam-do.

최 정(Jung Choi) [정회원]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리더십, 조직문화, 간호교육, 조직성과
- E-Mail : jchoi@ansa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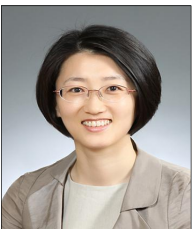
박 영 미(Young-Mi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5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susana21@ansan.ac.kr

하 영 옥(Young-Ok Ha) [정회원]



- 2003년 3월 : Univ. of Cincinnati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석사과정)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응급환자간호, 간호교육
- E-Mail : yoha@ansan.ac.kr

권 유 림(Yoo-Rim Kweon) [정회원]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간호교육, 질적연구
- E-Mail : kyr1016@ansan.ac.kr

송 정 희(Jung-Hee Song) [정회원]



- 2005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2월 ~ 2011년 2월: 김천과학대학 간호과 교수

- 2011년 3월~2015년 1월: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5년 3월~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학, 간호관리, 간호교육
- E-Mail : sjh1994@ansan.ac.kr

김 민 경(Min-Kyeong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8년 2월: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8년 3월 ~ 현재: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 간호교육, 건강행위
- E-Mail : kmkkmk@ansan.ac.kr

김 다 연(Da-Youn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Eastern Univ.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8년 8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8년 9월 ~ 현재: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여성건강간호, 간호교육
- E-Mail : dayoun@ansan.ac.kr